

“시대맞는 교화방편 갖출터”

총지종 총리원장 우승 정사 신년 인터뷰

총지종 총리원장 우승 정사는 “육정·수성 종령님들의 잇따른 열반으로 인해 침체했던 종단본 위기를 추스르겠다”며 “1년이 넘는 이른부재의 공백기간 동안 느슨해진 조직을 쟁기고 그 동안 미뤄왔던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뤄낸 성과가 만만치 않습니다.

-효강 종령님의 강력한 리더십 덕택에 종단 운영이 한층 안정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몇 년 동안 미뤄왔던 수명관정 수계별회를 6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서울과 부산에서 성대하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12월 종조 원정대중사의 유품과 서적, 행장 등을 정리한 원정기념관을 개관한 것도 지난해 손꼽을만한 일이었습니다. 원정기념관은 총지종의 위상을 드러내며 동시에 스승(진리)을 전하고 제자를 가르치는 본과 교도(법형제)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불단 장엄 같은 의식상의 변화에 불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종단 의식의 폐쇄도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해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그 동안 소리를 거의 내지 않

던 염송을 큰 소리로 하는 방안, 그동안 합장으로 대신하던 오체투지를 다시 하는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종도들의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오체투지는, 앞서서 하는 염송을 주로 하기

오체투지 재실시·불단장엄 의견 수렴 신축 법당 낙성·지방 사원 감사 실시

때문에 비롯된 여러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종단 정체성과 관계있는 불단장엄 문제에 대해서도 개혁차원에서 새롭게 연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총지사에 불안했던 티베트 금강계 만다라 등을 점차적으로 전국 사원에 불안할 계획입니다.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는 못 했지

만 종단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화 방편들을 갖춰나갈 생각입니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중무계획은?

-종령님 이하 종도들도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종단



지어 종단 교화 역량을 배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류됐던 지방 사원에 대한 감사도 이번에는 반드시 실시할 생각입니다.

▲새해를 맞은 불자들을 위해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달라미가 있어야 새해를 맞는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비심으로 분노심을 다스리면 복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에다 신고 정성을 다해 가꾸면 온갖 작음이 잘 자라듯 마음 속에 심으면 복이 풍성하게 열릴 것입니다. 새해에는 복 짓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이런 분들이 소외받고 외롭지 않도록 하는 게 신도회가 해야 할 본분 같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도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에 신도회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신도회의 활성화 방안은?

-신도회를 활성화하는 것도 우리 신도들의 몫입니다. 각 교구마다 신도회가 결성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중앙회는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중앙에서 활동할 신도 대표들을 뽑고 중앙회를 제대로 꾸려 종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경 예정된 경로잔치, 복지시설을 꾸준히 방문해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일, 각종 중단행사에 자원봉사를 하는 일 모두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강유신 기자

천태종, 호스피스협회 만든다

해외입양아 고국찾기 돕기로

천태종복지재단(이사장 윤덕)은 1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호스피스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니르바나호스피스협회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천태종복지재단은 올해 정회원 100명과 일반회원으로 나눠 현장 위주로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호스피스 종사자들도 보수교육을 통해 호스피스 전문 인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방침을 설명했다.

또 입양아초청 겨울 템프스테이 개최 등 해외 입양아찾기 사업도 더욱 심층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해외 입양아들이 복귀권과 유럽권

으로 흩어지는 것에 착안해 홀트아동복지회와 덴마크 현지 입양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양아들의 고국 찾기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천태종은 산하복지단체 및 장애인·노인 단체 지원,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진료, 경찰청과의 연동을 통한 미아 찾기 사업 등을 진행하며 복지의 지평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천태종 복지재단 상임이사 무원 스님은 “복지는 무엇보다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짜임새 있는 불교 복지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지진피해 스리랑카에 보문종 1천만원 전달



보문종(총무원장 범종)은 1월 28일 스리랑카 대사에게 종도들이 모은 남아시아 돕기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스리랑카 대사관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총무원장 범종 스님은 “지진 해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 국민들의 아픔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곡계굴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위령제

천태종(총무원장 윤덕)은 1월 21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2리 느티마을에서 사회부장 무원 제주 문강사 주지 진강 스님, 유족대표 조병우 씨, 권기수 단양부군수 등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곡계굴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위령제를 개최했다.

이날 위령제에서 사회부장 무원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천태종은 단양 곡계굴 참사자의 고귀한 넋을 위로하는 것 뿐 아니라 유가족과 관련 단체의 뜻있는 활동에도 적극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곡계굴 미군폭격사건은



곡계굴 미군 폭격사건 희생자 위령제 모습.

1951년 1월 6.25전쟁 당시 굴속에 피신해 있던 400여명이 미군기의 폭

격으로 사망한 충북 영동군 노근리 학살의 유사사태이다. 김원우 기자

관음종 올 예산 47억원 3월까지 승려분한신고

관음종(총무원장 흥파)은 1월 26일 서울 묘각사에서 제42차 중앙총회를 개최해 2004년도 결산 보고를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2005년 새해 예산안 46억 9800만원을 확정했다.

이날 중앙총회는 3월 31일까지 관음종 소속 스님들에 대한 분한신고를 하기로 결의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은 스님에게는 추가 1회의 분한신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신도 및 스님들의 교육을 위해 교육봉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관음종은 1월 24~26일 2박 3일간 서울 묘각사에서 종단 스님 대상의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강유신 기자

진각종, 4월 문화복지축제 연다

진각종 복지재단(대표이사 효암)이 올해를 ‘문화복지기반 확충의 해’로 정하고, 4월에 문화복지축제를 개최한다.

진각종 복지재단은 문화복지대 활동강화와 4월 중 문화복지축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문화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 협조해 문화와 복지가 접목된 신개념 복지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진각복지대상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대내외 상벌사항을 강화하고, 보다 전문화된 복지사업 전개를 위해 진각사회복지연구소 설립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만월회 회원 배가운동,

스리랑카 JGO센터 활성화 복한 및 탈북자 지원을 위한 국제구호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신도 1375명 동안거해제 구인사, 한달수도 마쳐

천태종(총무원장 윤덕) 구인사 갑신년 동안거 해제식이 1월13일 설법보전에서 열렸다. 이번 동안거에 한달수도를 수료한 불자는 1375명으로 집계됐다.

총무원장 윤덕 스님은 해제사를 통해 “한달동안 수행한 것은 자아완성을 이루는 큰 공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화합으로 종단발전 기여”

인터뷰 총지종 신도회 김은숙 회장

총지종 신도회 김은숙 회장(66)은 “올해도 신정회의 지상과제는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이라며 “신도회가 단합된 힘을 모아 종단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한해 신도회를 운영하며 보람이 있었나?

-지난 한해 신도회를 운영하며 느낀 점이 많습니다. 종조 원정기념관을 개관한 일부터 부처님오신

날 연등축제 경연에서 총지종 봉축장엄등이 장려상을 수상한 일까지 총지종 종도들이 하나로 뭉쳐 기여 가능했던 성과들입니다.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뒀다는 사실보다 어른, 신도회, 청년회, 총무원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만족합니다.

▲신도회의 올해 주요 사업은?

-올해도 지난해처럼 신도화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은 불변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사업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신도 가정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서 함께 하는 신도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신도회의 가장 큰 사업은, 일선에서 물러난 보살님을 위한 안식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은퇴한 총지종 스님들은 종단에서 양로원인 기로원을 운영해 모시고 있지만, 노보살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전무했던 게 사실입니다.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와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중 등



팔모조림등



팔모접등



만월등



※ 만월등, 중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